

국회에서

-“정치인과 파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?”

“신문입니다.”

“왜 하필 신문이죠?”

“신문에게 맞아죽잖아요.”

-“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무엇인지 아세요. ‘여러분과 함께라면’입니다.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맛있는 라면이 되겠습니다.

-일하지 않고 싸우는 국회를 두고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.

”국회가 개판이야!“

이런 경우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응대하면 더 친근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.

- ”나는 국회가 개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개들이 저희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.